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무엘하 6:12-21, 요한복음 8:25-30

최정웅 목사님

참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잘 보냈다. 이제 2018년이 밝아온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새해를 맞는지 모르겠다. 나는 옛날 악보를 찾았는데, '주님 위해 나는 살리라'라는 찬송이다.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해 고생하며, 주님 위해 죽겠다." 주님께 나를 드려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지, 전도자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더 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라 확신하네."

지난 한 해, 우리는 창립 50주년을 보냈다. 책만 나오면 행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다. 종교개혁 500주년도 넘어간다. 나로서는 전도운동을 24년을 했는데, 복음운동은 30년째라고 한다.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정말 많은 응답들을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았다. 우리교회는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교회라는 주제 안에서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헌신했고, 송구영신 때 받았던 말씀들의 성취를 보면서, 여러 모양으로 열매를 맺기도 했다.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50년을 위해서 한 걸음을 다시 내딛어야 할 순간에 왔다. 올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다. 이사야 43:7에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들을 오게 하라'고 했다. 이사야 43:21에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했다. 에베소서 1:6-9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의 제1문답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있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지고신자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개인과 교회로 언약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갔으면 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

1.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신약 본문, 요한복음 8:29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1)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신다고 했다.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償)주시는 분이심을, 근본적인 창조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다(히11:6).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존귀한 자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자기 정체성이다. 2018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2018년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2018년을 살게 하였고, 나를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살게 하셨다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끝내 주셨다. 고린도전서 3:16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써, 우리는 주의 성전이 된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하신다. 천명, 소명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명자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 어떤 질병이 와도, 이 사실을 견고히 붙잡고 나가야 한다.

(2)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셨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내 갈 길을 찾게 되었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내 할 일도 뭔지를 알게 되었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찾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한다. 항상이다. 그 속에 24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내 인생 목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찾아서 하는 것으로 잡고, 그 마음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도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환경이 좋고 나쁘고 돈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 것이다' 하면 될 해도 괜찮다.

(3)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로, 그 사람은, 그 일을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29절에 말씀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다. 성령충만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 힘을 가지고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곱 명의 램넛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 모델 되는 램넛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엡5:18)." 그러면 그 뜻을 알게 되고,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요셉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란다.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으시기 바란다. 시대는 점점 약해지고 문화는 점점 타락해 간다. "하나님, 새해 필요한, 2018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성령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직장, 가정,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빛의 삶, 소금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다.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모본이다.

복음운동에 참여했더니, 전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 "저는 고신대를 나왔습니다. 서울대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키도 작고 볼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세워주시는 일을 계속 하게 하시는 것은, 저 사람도 하는데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너무 겸손하게 말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겸손하게, 나는 죄인이 맞고 부족한 사람이 맞고 연약한 사람이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갈렙이,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가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서의 '혹시'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 아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85세 된 노인 갈렙이 나가서 한 말이다. "내 나이가 85세지만, 45년 전에 모세에게 들었던, 말씀대로 가면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나는 믿고 있다." 참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가 2018년을 살아보지 않았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담대하게, '나는 이 한 해 동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볼 거야'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란다.

2.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나와 있다. 많지만 세 가지만 찾아보자.

(1) 주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다. 주님의 관심은, 마태복음 16:13이하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그 위에 서면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되어 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게 생명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6:16이다. 이것은 잊어버리지 마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도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서 태어나서도 아니다. 하나님이 네게 가르쳐주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바르게 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떠나서 망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하신 참 신지자요, 우리 죄를 대속해주시므로써 우리가 그 죄악에서 건짐 받게 하신 참 제사장이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마귀를 친히 오셔서 잡으시고 그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지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진짜로 알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계속 병을 앓고 잘못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공부도 안 하고 애쓰는 사람은 아찔함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세상에서 정말 망해버린 인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에게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받기만 하면 시는데, 영접하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안 받아들인다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결실로만 가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는가.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 어머니의 뜻을 아는 사람은 요자다. 나라의 뜻을 아는 사람은 애국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요한복음 6:29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버리면 다른 것은 되어지게 되어 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늘 확인하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해주시를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모든 곳에서 이것이 누리지기를 축복한다.

(2)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마가복음 1:38에,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누가

복음 15:1-7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었다. 고린도전서 1:21에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했다. 에밀 브루너의 말대로,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듯,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크리스천은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정말 새해에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한다.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그러면 증인이 되겠습니다.” 계속 기도 해 보라. 놀라운 증거를 여러 면에서 주실 것이다. 지금도 보면, 류목사님은, “나는 이 뺨 하나 안 빠졌다. 머리도 물들이지 않았다. 60 중반을 넘었는데 안경도 안 쓰고 모든 것을 다 읽을 수 있다.” 정말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는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란다.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우리 장로님들이 전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교회에 앉아있게 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을 정도가 된다 하면 진짜 전도자다. 권사님이 그렇게 했다 하면, 여러분은 위대한 전도자다. 생이 달라진다. 세계관, 인생관이 달라진다. 증거가 너무 많게 된다.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게 전도제자로 계속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 새해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한다. 마음에 담아라.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증인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집사님이 복음소식을 얼마나 분명하게 암송해서 전하시던지, 내가 놀랐다. 이제 증거를 달라고, 증인이 되었다고 기도해 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남은 생애가, 구름을 타고 가는 것처럼 기쁜 인생이 될 것이다.

(3)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이미 답을 다 주셨다. 마태복음 28:16-20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15-20에, 만민에게 가서 치유해 줘라. 요한복음 21:15-18에, 후대를 살려라. 사도행전 1:8에는 증인이 되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 보라.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다. 김재승 목사님이라고 총회장까지 지낸 분이요. 이분 교회에 너무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여자가 있었다. 사람들이 기도를 못 할 정도로 시끄러웠다. 이분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오십이 되기 전에 성령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전도부인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속으로 목사님도, ‘저 사람이 주제를 모르는구나.’ 시끄러워서 이분을 지하에 내려가서 기도하라고 보냈더니, 교회의 기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그래서 다시 불러올려서 기도하게 한 것이다. 그러는 중에 이 목사님이 교향 교회를 찾아갔다. 그런데 그 시골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전도부인 하나 소개해 주세요. 학력은 없어도 괜찮으니, 성령충만하고 복음 잘 전하고 교인을 사랑하는 전도부인을 하나 소개해 주세요.” 속으로, ‘그런 사람이 없는데 내가 쓰겠다.’ (웃음)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나하고 동역했겠지, 못 찾는다.’ 그런데 돌아와서 새벽기도를 하고 있으니, 아까 그 여자가 또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주여! 오십이 되기 전에 내게 성령충만을 주시면 내가 전도부인이 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구하는 사람이 딱 그 사람이었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받겠다’ 했더니, 고르고 가려고 할 참이 아니다. ‘보내주시면 받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내려갔는데, 3년 후에 목사님이 그 교향교회 목사님을 만났다. 너무 반가워하면서 점심을 사줬다는 것이다. “훌륭한 여종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담이 났습니다. 배가 되었습니다.” 80명 모이던 교회가 160명이 되었다는 것이다.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발도 매고 설거지도 해 주고 봉사를 하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나는 그 여자를 무시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 생각을 한 것이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나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여기 성경은 말씀한다. 제자운동, 치유운동, 후대운동, 증인운동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한다. 올해 우리의 전체 방향이 제1, 2, 3 RUTC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원단기도회 메시지가 나오겠지만, 1장이 치유전문집중학교, 2장이 서밋전문집중학교다. 우리가 그 전체 메시지를 따라가야 한다. 치유운동, 후대운동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성경 그대로다.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 ‘정말 전도제자가 되겠다. 주의 몸 된 교회의 제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내 일생 사는 동안 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증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시기 바란다.

3.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모델이 있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본문에 읽은 다윗이다.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된다. 그 모델이 일곱 램넛 아닌가? 그 중 다윗이다.

(1)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풍성했던 사람이다. 시편 18:1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윗의 삶의 첫 번째 동기였다. 근원이었다. 근본이 그것이었다. “내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분명한 기초가 되기를 축복한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2) 모든 일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했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다.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일곱 램넛가 다 그랬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낮고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걸림돌로 삼지 말고, 주신 기능, 재능,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안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언약궤를 모시면서 앞장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다. 온 백성들 앞에서 춤을 췄다. 바닷길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 미갈이 그것을 조롱했더니 하나님이 미갈의 태를 받아 버리셨다. 자기는 공주라서, ‘어휴 저 친덕꾸러기, 목동 하다가 와서는 저게 무슨 짓거리인가.’ 그랬지 않나? 그런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시편 119:164에는, 하루에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다.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면 후대가 살아난다. 가정이 살아난다. 자신이 살아나게 된다.

(3) 세 번째로, 다윗은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른다. 언약궤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중심이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 뜯어쳐가는 친막 아래 있구나, 내가 어떻게든지 성전을 지어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 그런 입금이 전에 없었다. 시편 27:4에, 다윗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평생에 여호와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이름더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편 84:10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낫다’고 했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전 문지가 되는 것이 좋겠구나.” 왕이 고백하는 내용이다. 나는 목사 그만두면 관리집사 하면 잘 할 것 같다. 교회 어디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아니까, 사부작사부작 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빠릿빠릿하게는 못 하지만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은퇴한 장로님, 권사님들도 나는 은퇴하면 찬양대 해 보고 싶다. 목소리 나올 때까지 하면 되지 않나.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으면, 주의 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 날 사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하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살고 싶다고 한다. 미국에 가니까, 은퇴장을 했던 분이 은행 문지기를 하고 있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언약궤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사랑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 바란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하나님은 이때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사무엘상 16:13에 보니까, “이 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와 신이 크게 감동했다.” 충만해졌다는 말이다. 성전을 사모하다가 여러분에게 성령충만이 임하기를 바란다. 성전을 돌아보고, 지하실을 만져보고, 여기가 있는구나 하고 안타까워하는 분이 우리 장로님들 중에 있는지 모르겠다. 다윗을 보라. 다윗은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언약궤는 친막에 있었다. 바람 부는 곳에 있으니, 언제 저 친막이 다 헤어질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어서 법궤를 모실까 하면서 안타까워한 것이다. 법궤를 모실 때 너무 기뻐서 왕이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라.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형편, 이 처지, 이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되기를 축원한다. 시편 89:3-4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됨을 볼 수 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네 왕권이 계속될 것이다. 내가 다윗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 중에서는 너무 악한 자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때문에 내가 참겠다’ 하시는 것이다. 사도행전 13:22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아니겠는가. 그 사람이 필요하다.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장로, 집사, 권사, 목사가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 보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램넛,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귀한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는 2018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게 된다. 스바냐 3:17에 말씀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는가.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 2018년이 밝았다. 우리 모두 성령충만하여 은혜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도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열매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18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나, 하나님이 역사의 끈을 잡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를 붙잡아주시고 남북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며, 참사랑가 족들이 산업, 직장, 학업, 가정을 통해,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도 다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다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의 일곱들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